

P&G COMMUNICATION & INFORMATION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P&G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THE P&G SAGA · 12

정보

처음으로 소통한 이들은 옷을 입지 않은 원시인들이었다. 처음으로 정보를 전한 이들은 옷을 입은 원시인들이었다. 기자증도 함께.

여전히 원시인들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앞의 사람들은 삶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뒤의 사람들은 살아남은 이들을 다시 살려 내는 일로 먹고산다.

그러나 논쟁이나 비판을 할 시간은 없다 — 그것은 내가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를 통해 둘 사이의 인류학적 차이를 들려주는 것이다.

소통의 첫 번째 진정한 형태는 — 여기서 모두가 의자에서 펄쩍 뛰겠지만 — 침묵이다.

말 이전에, 목소리 이전에, 몸짓 이전에, 자세 이전에, 침묵의 실천은 언제나 한 사람의 지성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능력으로 재어 왔다 — 결코 그 반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남자들은 함께 모여 별을, 추상을, 상상된 것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 그러다 멀리서, 자기들끼리만 있다고 확신한 한 무리의 여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낮은 목소리, 절제된 어조, 절제된 리듬, 질서 있는 억양, 단어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놓였다. 여자들이란 그렇다.

그러나 침묵이 인류에게 남긴 첫 교훈은 일종의 내면적 신중함이 아니다 — 그것은 방법이며, 진짜 결정이 내려지는 모든 공간 안의 마지막 경계다.

그래도 침묵 속의 소음이야말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안에서 오며, 감정적이고, 인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본능적이고 정서적이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리고 여기서 그것을 진정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언제나 나처럼 여자들이다 —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기능적이어서, 인류의 번식을 이어 가는 임무까지 맡게 되었다. (다른 분야 — 생물학, 세포의 세계 — 에서는 출산하는 수컷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류의 소통이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나머지 모든 것은 각자의 경험에 맡긴다 — 그것이 우리라는 존재의 가장 좋은 부분이다.

정보는 어릴 적 하던 놀이를 떠올리게 한다: 모두가 둥글게 앉고, 첫 사람이 옆 사람 귀에 단어 하나를 속삭이면, 그것이 열두 사람을 거쳐 줄을 따라 전해진다. 끝에서 나온 것은 대개 웃음의 소동이었다.

놀이는 단어 하나로도, 문장 전체로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살 것이다”로 시작하면, 열두 번 전해진 뒤 끝에서 나온 말은 “죽을 것이다”였다.

“그가 살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았다”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면, 열두 번 전해진 뒤 “그가 죽은 걸 모두가 알았다, 장례식은 12월 12시”로 돌아왔다. 하하하하.

오늘날 언론이 정보를 옮기는 모습이 정확히 그렇다 — 한 사건의 같은 첫 문장이 매체마다 다르게 보도된다. 우리가 아이들 놀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신문 가판대와 편집국 사이에 더는 아무 차이도 남지 않은 정보 산업의 쓰라린 진실이다.

결국 두 가지는 하나의 실을 공유한다 — 둘 다 같은 원시적 기원의 자식들이다. 사람들이 웃을 입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즐거운 독서가 되기를.

Ferdinando